U-러닝 미래형 LCD 전자칠판
전자칠판 대블릿 노트북 AP
www.tyunc.com ☎031_484_3858

교육연합신문

능력있고 소통되는 믿을만한 변호사
법무법인 우 신
민사/형사/가사 무료법률상담 환영
사무실 : 032-861-2222
휴대전화 : 010-4380-5607

2017년 4월 26일(수) 제 275 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상인천여중 '꿈 만들기' 진로캠프 6면

상인천여자중학교는 4월 14일 '꿈 만들기' 진로캠프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1학년은 '나 알아가기', 3학년은 '미래 설계하기'라는 주제로 교실과 강당에서 진로캠프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진로탐색검사 활용에 대한 설명과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광주세광학교에 온 '특별한 재능기부' 10면

제37회 장애인의 날은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세광학교(교장 김은희) 학생들에게 특별한 하루가 되었다. 이날 세광학교 교직원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포옹하고 축하 공연 '애들아 사랑한다'를 진행했다. 교직원들은 기타를 연주하며…

나주교육지원청 탐방 16면

천년 고도의 역사와 빛가람 혁신도시의 희망찬 미래가 함께하는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인성)은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나주인 육성'을 비전으로 '살아 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4개 역점과제, 1개 특색과제를 선정하여…

대학생 취업 고민 같이 합시다

교육부 '전국대학 진로취업 포럼' 개최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용호)가 공동주최하는 '2017 전국대학 진로취업 포럼'이 4월 2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전국 대학의 진로.취업 관련 처(원)장이 참석해 대학생들의 진로취업 애로사항 및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와 대학은 청년 실업에 대응하고, 우리 대학생들의 진로취업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포럼을 실시함으로써 대학 진로취업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 포럼에서 2016년 대학 진로취업 컨설팅 성과와 향후 확대 방안을 포함한 '2017 대학 진로취업 지원방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각 대학의 진로취업 지원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청년위원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진행한 '대학생 학년단계별 진로교육시스템 구축 지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대학 진로취업처장 협의회' 구성을 협의함으로써, 향후 대학이 자체적으로 진로취업 관련 아젠다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대학생 진로취업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우리 대학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진로취업 고민이 심각해지고, 휴학, 편입, 부·복수전공 등 진로변동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이 함께 나서 학생들이 진로취업 고민을 상의하고 나눌 수 있는 대학 진로취업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위원회도 대학의 진로교육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직업세계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진로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진로교육에 대한 대학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이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2017년 대학 진로취업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독도는 우리가 지킨다!

교육부-동북아역사재단, 독도지킴이학교 130교 발대식 개최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은 4월 20일 독도지킴이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학생과 동아리 지도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지킴이학교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일본이 매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함에 따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독도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발대식에서는 임명장 수여식과 선서식, 전문가 강연, 우수 사례 소개 등 독도지킴이학교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임명장 수여식과 독도 수호 선서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도지킴이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독도수호의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반크(VANK), 세이울(SAYUL) 등 독도 영토수호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 대표들의 생생한 강연은 학생들이 독도를 이해하고, 삶속에서 독도 사랑 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독도지킴이들은 독도 영토 수호 캠페이, 동해·독도 표기 홍보 등 독도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학생과 일반 시민 대상으로 독도영토주권 수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실천중심 독도교육을 위해 독도지킴이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나아가 일반 시민들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실천적 활동가로 자라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전남대, 노열 교수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학술논문상 수상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지질환경전공) 노열 교수가 지난 4월 20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50차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총회에서 학술논문상을 수상했다.

노열 교수는 '암석을 이용한 나노실리카와 금속 회수 및 이산화탄소의 고정'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진성 기자 hjs@

초등 1~3학년 "여기는 꼭 가보자"

서울상상나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서울상상나라가 문을 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주목해보자. 매주 토요일(총 7주) 다양한 전시물을 체험하고 연극과 미술을 경험하는 통합예술 교육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오는 11월까지 총 4기에 걸쳐 진행되며, 기수별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서울상상나라(광진구 능동)는 2017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으로 '친구가 보내온 상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다.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매주 주말에 아동 및 가족들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전국의 문화예술기관으로부터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공모, 선정된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상상나라에서 진행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친구가 보내온 상자'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물을 체험하고, 연극과 미술을 경험하는 통합예술 교육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은 가상의 친구가 보내온 상자 속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고, 새로운 친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 친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매 기수마다 총 7주 수업으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진행되는데, 어린이들은 움직임, 소리, 형태, 색, 요리, 건축 등의 활동을 연극놀이와 미술작업 활동을 통해 창조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참가비가 무료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들 중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를 우선 선발하고, 일반 가정 어린이도 선착순 신청으로 참가 가능하다.

상반기 일정은 1기 4월 8일(토)~5월 27일(토), 2기 6월 3일(토)~ 7월 15일(토)이다. 2기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서울상상나라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5월 2일(화)부터 신청하면 된다. www.seoulchildrensmuseum.org

김혜정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매주말 아이와 무엇을 할지 고민되는 초등학교 1~3학년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문을 두드려 보라"며, "정답이 없는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능력을 키우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소통과 표현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청소년수련관, 제26회 인천청소년가요제 개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음악적 소질계발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을 위해 '제26회 인천청 소년가요제'를 오는 6월 24일(토) 15시~18시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인천광역시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인천시 관내 만11세 이상(초등학교 5학년) 만24세 이하(일반 청소년)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솔로, 중창, 그룹사운드, 댄스 부문으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참가 신청은 4월 17일부터-5월 8일까지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www.insiseol.or.kr)를 참고하고,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i-youth@insiseol.or.kr), 팩스(465-6826), 방문신청을 받는다.

문의: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http://www.insiseol.or.kr/ 722-9151)